

金融通貨委員會 議事錄

2004년도 제6차 회의

1. 일 자 2004년 3월 1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박 승 의 장 (총 재)
김 원 태 위 원
남 궁 훈 위 원
김 태 동 위 원
이 근 경 위 원
이 성 태 위 원 (부총재)
김 종 창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이 상 용 감사 이 재 욱 부총재보
정 규 영 부총재보 이 상 현 부총재보
정 방 우 부총재보 박 재 환 부총재보
이 주 열 조사국장 윤 한 근 정책기획국장
이 영 균 국제국장 김 석 종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양 정 균 공보실장
6. 회의경과

<의안 제12호 — 통화정책방향>

(1)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26호 - 「국내외 경제 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27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28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2)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2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3)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할 경우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이 당초 전망치와 비교하여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번 경제전망시와 비교할 때 소비와 설비 투자는 소폭의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있으나 수출의 기대이상 호조 가능성도 있어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건설투자가 현재까지는 양호한 편이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나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설투자 전망이 이처럼 불투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1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지난달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은 설 요인으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투자는 아직은 괜찮은 편이며 연간으로도 당초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는 한편, 최근 들어 건설수주액이나 건축허가면적 등의 선행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건물의 평균 공사기간이 2년 6개월 정도이고 작년 상반기까지는 선행지표가 양호했던 점을 고려하면 금년까지는 건설경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1월에 제조업생산이 5.2% 증가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서 볼 때 생산활동 증가가 반도체 등 일부 수출주도품목에 국한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며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인해 내수부문과 수출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일부 주력업종 주도로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1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최근 수개월동안 지속되어 온 패턴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성장주도형 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존의 내수위주 업종이 회복되어야만 고용도 증가하고 소비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면서 내수경기 및 고용의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의 환율상승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면서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조합(policy-mix)이라는 측면에서 환율변동이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의 거시경제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들어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예상외 급등으로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졌다는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국제유가는 외국기관들의 전망치보다 실제로 더 빠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상승압력도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물가동향에 대해 좀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한편, 국제시세, 환율전망, 실제 상승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금속원자재, 기초농산물, 경공업원료 등의 기타원자재가격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과거 세계경기과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들어 OECD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는 등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은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 및 원자재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2/4분기에는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원자재가격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계경기 회복 여부, 달러가치 변동 등에 따라 원자재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원자재가격을 전망하고 수출입단가 등 물가 전망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국제원자재가격 전망과 관련하여 유가는 2/4분기 이후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원자재가격이 안정될지는 의문시된다면서 물가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국제원자재가격이 경기회복의 복병이 될 수 있으므로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원자재가격 동향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금년도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자재가격이 2/4분기나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이 과거 수년간은 내수부진으로 인해 가격인상 요인을 상당부분 흡수하고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물가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예상과 달리 하반기에 기업의 채산성이 매우 나빠지거나 내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전가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염려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동 위원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청년실업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통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향후 국제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급등할 수 있으나 당행이 물가안정의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근원인플레이션은 당초 전망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자재가격이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2003년에 중국경제는 9%가 넘는 고성장을 하였으며 부동산, 철강, 시멘트 등의 투자증가율은 100%를 넘어섰고 통화증가율도 20% 내외에 이르렀으며 금년 들어서는 물가상승률도 3%대를 나타내는 등 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중국정부의 과열억제정책이 예상되는 등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외국환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내역을 볼 때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1월까지의 순매입을 보이다가 2월에는 반대로 큰 폭의 순매도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비거주자가 대규모 순매도를 보임에 따라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조치가 시행되었다고 설명하는 한편, 2월 들어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순매도를 기록한 것은 하순으로 가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비거주자의 헷지수요가 커져 순매입으로 전환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외국환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 만기도래청산(fixing) 규모가 2001~2002년에 비해 작년에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특히 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만기 분산효과로 인해 만기도래청산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매입 증가로 인해 차액결제선물환 잔액이 증가하는 등 만기도래청산 규모의 증가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만기도래청산 규모가 증가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스왑시장에서의 차익거래(arbitrage) 유인 증대로 인해 외자유출입 차익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 우리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야기하는지, 외자유출입이 거의 없었을 경우에 비해 거시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1월 들어 기업대출, 가계대출, 신용카드사 연체율이 모두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가계대출 연체율은 대체로 작년 수준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카드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앞으로도 당분간은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볼 때 기업들이 과거에는 내수위축에 따른 수요부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으나 최근에는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자금사정 순으로 애로사항을 들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기업들이 경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원자재 문제가 기업들의 부도 증가나 연체율 상승 등을 야기할 우려는 없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2월중 부도업체수가 1월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 부도업체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자재 문제보다는 내수부진으로 인해 부도업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2월중 채권공급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도 현재까지는 시장금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채권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금리 하락 등의 해외요인과 채권수요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기시장금리가 작년말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수급 동향에 대해 좀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동 위원은 2월 들어 정부 및 해외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은행 및 투신사의 단기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 재정부문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증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작년 상반기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이 있었으나 금년 들어 재정의 조기집행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최근 3개월간(전년 12월~2월) 은행의 기업대출 추이를 볼 때 지난해에 비해 대기업 대출은 큰 차이가 없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현격하게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동 현상이 작년말경부터 일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다소 강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통화증가율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어 기업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으나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면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 통화수요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통화증가율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부도업체수가 2월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고 어음부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일반보증사고발생률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경기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동 위원은 신용카드사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카드채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것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시장의 신뢰가 일부 회복된다면 카드채에 대한 기피현상은 4월 또는 5월경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배드뱅크(bad bank)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동 제도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용불량자의 채무상환 일정을 재조정(rescheduling)하는 것일 뿐 신용불량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책은 아니므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좀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일부 위원은 최근 10개월 정도의 주가상승 국면에서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주식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자산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자산운용 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기관들이 자산운용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건전한 금융시장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시장기반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속수무책으로 있기보다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기관투자가들 중에서 자체자금에 의한 투자여력이 있는 기관은 보험, 연기금, 은행 등인데 동 기관들은 주식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반면, 투신사는 자체자금보다는 주로 개인들이 수익증권에 투자한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익증권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개인들의 환매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은행들이 자산 및 자본 확충과정에서 자본에 비해 자산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자산운용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위험자산인 대출보다는 무위험자산인 국공채나 통안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이와 같은 은행들의 행태가 M3증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이 작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금년에도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일반보증사고발생률을 포함한 여타 자금사정지표가 별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도 기업의 자금사정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대환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금대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로 등 현금대출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익성을 높이는 영업수단이었으나 연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신용카드사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현금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현금대출 비중이 어떻게 축소되어 왔는지, 신용카드사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최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신용카드사의 자산대비 현금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영업수익 중에서 현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이 2001~2002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작년에 수익구조면에서 볼 때 영업수익대비 현금대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신용판매 수익이 현금대출관련 수익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민간소비에 대한 분석자료 및 소비자기대지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시의 예상보다 민간소비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경기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용카드사 문제가 경제성장률 및 경기회복 시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2003년중 도시 근로자가구의 금융부담률(financial obligations ratio)이 31.4%에 달한다는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동 비율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금융부담률은 원금상환, 이자지급,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 매월 고정적인 가계부담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계산된 것이며 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미 연준의 방법을 원용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작년도 도시 근로자가구의 원금상환부담이 22% 정도인 것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금년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래 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기연장비율(rollover ratio)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금상환부담은 금년에도 특별히 낮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실질 통화증가율이 실질 GDP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동 현상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유통속도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

인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유통속도의 변동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선도금리곡선이 1월 이후 하방 이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기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선도금리곡선은 경기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형성된 장기금리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금리를 추산한 것이므로 최근 선도금리곡선이 하방 이동한 것은 주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수출·내수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 등이 장기적인 균형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경제부문별 불균형 문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실질 통화증가율과 실질 GDP성장률의 차이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 2/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03년 들어 시중유동성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은 것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2001~2002년에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다소 과잉 공급되었던 가계신용이 2003년 이후 조정되는 과정에서 실질 통화증가율과 실질 GDP성장률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작년 7월의 콜금리 목표 인하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CD 유통수익률이 10월말경부터 연말까지 상승한 후 금년 들어 하락세로 반전하여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금년 들어 콜금리 목표의 조정은 없었으나 풍부한 단기유동성이 투신사 MMF로 상당부분 유입되었으며 작년 카드채 사태 이후 투신사 MMF가 국공채, 통안증권, CD의 편입을 확대함에 따라 CD 매입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매월 지표에 의존하여 금리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금리정책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경까지 시계를 넓혀 미국경제 전망 및 금리조정 가능성 등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주요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국제원자재가격이 불안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내수회복세는 미약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경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실제로 기업이나 시장 등 경제현장에서는 고용사정 및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지표상으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체감경기와 경제지표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동 위원은 기업, 정부, 건설현장 등에서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품귀현상, 중국효과(China effect) 등이 물가나 기업의 경영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용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조업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제원자재가격 파동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좀더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내외부문의 균형을 위한 환율 및 금융정책의 적절한 조화라는 측면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가치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물가, 경기 및 기업경영, 금융시장 측면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첫째,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비용측면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 콜금리 목표를 조정할 만큼 물가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둘째, 소비, 설비투자는 부진하지만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

기상황은 일단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기업경영 측면에서 볼 때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업중단이나 부도발생 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셋째, 금융시장의 유동성사정은 전반적으로 원활한 상태로 판단됨

다른 일부 위원은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조화적 운용이 요구된다면서 「한국은행법」 제83조에 규정된 환율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기능을 적극 활용해 정책조화를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동 위원은 시장금리의 변동폭 확대, 통안증권 발행액 증가로 인한 본원통화 공급 감소 및 금리정책의 효과 감소, 차익거래 유인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자본유출입 확대, 해외차입 과잉(overborrowing) 현상 발생 등 최근의 외환시장 불안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환율의 움직임 등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좀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동 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는 내수부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금융 측면에서는 원리금상환부담률, 금융부담률 등에서 볼 때 가계의 금융부담이 금년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혼재된 정책고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실물경제 면에서는 원자재가격 상승, 기업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수출을 제외한 소비와 설비투자 등은 작년 4/4분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이나 생산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장래의 물가상승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임; 셋째, 가계의 부채부담이 매우 크고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볼 때 금융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일부 위원은 고용지표나 경기선행지수 등에서 볼 때 경기는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수출 및 산업생

산 등이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내수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신용카드사 및 가게 금융부담 문제 등 금융시장 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도 이번에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이나 물가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경제가 부문별로 명암이 엇갈리면서 통화정책 면에서도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면 이번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물가문제에 대한 좀더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국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는 있으나 너무 과잉대응할 경우 물가불안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의결문 작성 과정에서 앞의 일부 위원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의결문안 중 ‘물가는 내수 저조로 근원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음’이라고 기술한 부분에서 ‘계절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동 의결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소수의견을 남기고자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첫째, 금년 1~3월중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분은 전년동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물가에 대한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지난해보다 커졌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3월중 공표한 의결문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계절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의결문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둘째, ‘계절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의결문에서 삭제함으로써 최근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요인을 좀더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됨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에 따라 위원들은 다수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앞의 일부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동의하였음

(4)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다만, 김태동 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 김태동 위원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의결문의 ‘계절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음)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실물경제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였으나 수출 호조에 주도되어 산업생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 물가는 내수 저조로 근원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음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큰 폭 흑자에 힘입어 전월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 사정이 자금수요의 저조로 대체로 원활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연 3.75%)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I.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경제는 확장세를 지속하였음. 1월중 설비투자와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월에도 ISM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음. 유로지역의 GDP성장률(전기대비)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내었으며 1월에는 독일 및 프랑스의 소비가 모두 증가하였음

일본경제는 뚜렷한 회복 움직임을 보였음. 지난해 4·4분기에는 설비투자 및 수출 확대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금년 1월에는 소매판매 및 자본재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수출도 호조를 지속하면서 광공업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중국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1월중 산업생산이 자동차 및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였음. 다만 수출은 수출증치세(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나. 국제금융시장 및 원자재가격

미국 주가는 2월 들어서도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확산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그러나 하순 이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늘어나면서 하락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주요 기업의 수익개선, M&A 추진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일본 주가는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 호조 발표, IT 관련업종의 실적 개선,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음

미달러화는 2월 중순 이후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었음. 유

로화에 대해서는 월초 ECB의 금리동결, Greenspan 미 연준 의장의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긍정적 견해 표명 등으로 절하되었으나 중반 이후에는 유로 주요국 정상들의 금리인하 촉구 등으로 절상되었음. 엔화에 대해서는 전월말 수준인 105 엔대를 유지하다가 중순 이후 IMF 총재의 일본은행 외환시장개입 타당성 인정 발언 등으로 강세를 시험하였음

국제유가는 OPEC 총회(2.10일)에서의 생산쿼터 준수 촉구 및 추가 감산 합의, 미국의 휘발유공급 차질 우려 확산 등으로 급등하였음

비철금속가격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공급차질 우려 등으로 전월에 이어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특히 동가 가격은 칠레 및 캐나다 주요 광산의 노사불안 지속 등으로 2월중 크게 상승하였음

곡물중 소맥가격은 호주의 수확량 증대 전망으로 하락하였으나 옥수수 가격은 주산지의 수확감소 예상으로 상승하였음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및 임금

소비는 부진을 지속하였음. 소비재 판매가 1월중 크게 감소하였음. 품목별로는 비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는 감소로 전환하고 내구재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설비투자도 계속 저조하였음. 1월중 설비투자추계와 기계류 내수출하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다만 내수용 기계류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증가로 반전하였음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1월중 건설기성액은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였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감소로 전환하고 건축허가면적도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제조업 생산활동은 호조를 지속하였음. 1월중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전월보다 낮아졌으나 이는 설 시기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 크게 기인하였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출하도 조업일수 감소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꾸준히 증가하였음. 재고는 전월보다 상당폭 감소하였으며 재고율지수도 하락하였음

서비스업활동은 더욱 부진하였음. 1월중 서비스업 활동지수가 감소로 전환하였음.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로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등이 큰 폭 감소로 전환하고 의료업 및 금융·보험업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고용사정은 개선추세를 지속하였음. 1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후)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계절조정후)이 2개월째 하락하였음

지난해 12월중 임금(상용근로자 기준)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음. 이는 정액급여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연말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감소로 전환한 데 기인하였음. 2003년중 연간 상승률은 전년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2월중 소비자물가는 0.4% 상승하였음. 채소 및 과실류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도시가스료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석유류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은 2월중 오름세가 둔화되었음.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월에 크게 상승하였던 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서비스 가격도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전월과 비슷하였음

2월중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은 계절적 이사수요 증가로 상승 전환하였음

다. 대외거래

2월중 수출(통관기준)은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음. 품목별로는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철강 등이 높은 신장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음. 지역별로는 중국 및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음

2월중 수입(통관기준)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2월중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로 전월에 이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II. 외환 · 국제금융 동향

1. 환율

2월말 원/달러환율은 1,176.2원으로 전월에 비해 2.5원 상승하여 월중 0.2% 절하되었음(전년말에 비해서는 1.4% 절상). G7회의(2.6~7일)에서의 아시아국가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 우려, 수출호조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2.18일에는 1,152.2원으로 하락하였으나 시장개입 경계감이 강해진 데다 엔화도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반전되어 월말에는 1,176.2원으로 마감하였음

2월말 원/엔환율(100엔당)은 1,076.2원으로 월중 30.8원 하락(월중 2.9% 절상, 연중 3.6% 절상)하였음

주요 10개 교역상대국 통화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2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1.3% 절상되었음. 아시아 5개국(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통화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명목실효환율도 전월대비 1.3% 절상되었음

2월중 외국환은행은 선물환 매입초과포지션으로 인하여 현물환을 6.2억달러 순매도하였음

2. 외환수급

2월중 경상 및 자본거래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였고(1월중 60억달러 → 2월중 47억달러) 금융거래는 전월의 순유출(-37억달러)에서 순유입(10억달러)으로 반전되었음

2월중 경상거래는 전월(24억달러)에 이어 큰 폭의 흑자(25억달러)를 기록하였음. 무역거래는 수출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입이 소폭 증가하여 흑자 규모가 전월의 29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축소되었음. 무역외거래는 서비스거래 적자 축소, 투자소득 흑자 증가로 전월의 적자(-5억달러)에서 2억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음

자본거래는 순유입 규모(22억달러)가 전월(36억달러)보다 축소되었음. 장기 자본거래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둔화,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전월(37억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19억달러가 순유입되었음. 단기자본거래는 원유수입관련 차입 증가 등으로 전월의 순유출(-1억달러)에서 순유입(3억달러)으로 전환되었음

금융거래는 전월의 순유출(-37억달러)에서 10억달러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음. 국내 외국환은행의 순유입(15억달러)은 외은지점의 순유출(-5억달러)을 상회하였음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2월말 외환보유액은 1,630억달러로 월중 56억달러 늘어나 전월(21억달러)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이는 미 국채 이자수입에 따른 운용수익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2월말 총외채(추정치)는 1,647억달러로 월중 42억달러 증가하였음. 장기외채는 은행의 외화증권 발행이 활발하였던 데다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로 26억달러 증가하였고, 단기외채도 은행차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하였음. 총외채에 대한 단기외채비중(36.4%) 및 유동외채비율(47.5%)은 전월말 수준을 유지하였음

한편 총대외채권이 외환보유액 및 외은지점의 본지점대여를 중심으로 약 71억달러가 늘어남에 따라 2월말 순대외채권은 월중 29억달러 증가한 734억달러를 기록하였음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2월중에도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계속 호조세를 나타내었음.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13bp, 중장기차입 가산금리는 92bp수준을 기록하였고 외평채(2008년물) 가산금리는 Citigroup의 한미은행 인수발표 등으로 2.19일 45bp까지 하락하였으나 그후 한국물 발행 증가 등으로 반등하여 월말에는 전월말과 비슷한 51bp를 기록하였음

2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중장기차입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원활하였음. 월중 국내은행들의 장단기차입액은 만기도래액(32억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42억달러에 달하였음. 외화대출은 전월과 비슷하였으며 거주자외화예금은 전월에 비해 3억달러 감소하였음. 국내은행의 외화콜론 규모는 전월보다 10억달러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2월중 선진국 주가는 국가별로 등락이 다소 엇갈렸음. 미국 주가(Dow지

수)는 Greenspan FRB의장의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증언 등으로 월중순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후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으로 반전되어 상승폭이 축소되었음(+0.9%). Nasdaq지수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양상을 보여 하락하였음(-1.8%). 프랑스 및 영국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호전 등으로 상승한 반면 독일 주가는 일부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으며(프랑스 +2.4%, 영국 +2.4%, 독일 -1.0%), 일본 주가는 수출호조 등으로 상승(+2.4%)하였음

2월중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약보합, 엔화에 대해서는 상당폭의 강세를 시현하였음. 유로화는 Greenspan FRB의장의 의회증언 등으로 월중반까지 강세를 보였으나 그후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약세로 반전하여 강세폭이 축소(0.1% 절상)되었음. 엔화는 G7회의를 전후한 강세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의 시장개입으로 105엔대를 유지하다가 일본정부의 테러경계수위 상향조정을 계기로 투자자들의 미달러화 short-position covering이 확대되면서 큰 폭 약세로 전환(3.0% 절하)되었음

2월중 주요 선진국 장·단기금리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중앙은행의 저금리기조 유지 예상, 아시아 중앙은행의 선진국 국채 매입세 지속 등으로 하락하였음

한편 2월중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스웨덴 중앙은행은 인하하였음

III.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2월 이후 대체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저금리정책 기조 유지 기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양호한 자금사정을 바탕으로 한 채권매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CD(3개월) 유통수익률 등 단기시장금리도 장기시장금리 하락, 투신사 MMF 증가에 따른 매입수요 확대 및 은행의 CD발행 감소 등으로 전월말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

2월중 은행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은행들이 연말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장기수신금리를 전월에 인하한 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수신 호조, 시장금리 하락 등을 감안하여 수신금리를 추가 인하조정함에 따라 다시 3%대로 하락하였음. 은

행 여신금리도 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 모두 하락하였는데, 특히 가계대출금리가 CD금리 하락 외에 신학기를 앞두고 저리의 학자금대출 취급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하였음

2월중 채권수급상황을 보면 채권공급은 정부 및 해외부문을 통해 공급된 잉여 유동성 흡수를 위한 통안증권 발행이 대폭 증가한 데다 국고채도 전월보다 순발행규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크게 확대되었음. 한편 채권수요 면에서는 국내은행 및 투신사는 수신 호조를 바탕으로 채권매입을 확대하였으며 외은지점도 금리하락 과정에서 딜링용 매수를 크게 확대하였음. 은행신탁은 채권 매각을 지속하였으나 수신 감소세 둔화로 매각 규모는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장기투자기관인 연기금은 채권매입을 확대하였으나 보험사는 중기적인 금리상승 우려로 채권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2월중 종합주가지수는 국내외 경제회복 기대 등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큰 폭 상승하였으며,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주가도 미국 주가상승세를 상회하는 호조를 지속하였음. 외국인 순매수 지속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시가총액 기준)은 사상 최고 수준(3.4일 현재 43.1%)으로 상승하였음. 다만 외국인들은 2월 들어 미국 뮤추얼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된 가운데, 그동안의 주가상승에 따라 저평가 메리트가 약화됨에 따라 순매수 규모를 다소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한편 국내 기관투자자는 순매도를 지속하였으나 순매도 규모는 크게 축소된 반면 개인들은 차익실현 등으로 대규모 순매도를 지속하였음

2. 통화총량

2월중 M3증가율은 정부 및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 확대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5%내외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월중 M1증가율도 수시입출식예금 및 MMF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7%내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2월중 은행 수신은 정부 및 해외부문에서의 유동성 공급 확대, 설 이후 현금통화 환류 등의 영향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다만, 만기 1년이상 장기정기예금은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투신사 수신도 MMF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채권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이러한 은행 및 투신사의 단기수신 증가로 2월 주요 금융기관(은행, 은행신탁, 투신사, 종금사)의 수신 평균잔액중 단기물 비중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48.7%를 기록하였음

정부 및 해외부문을 통해 공급된 통화가 주로 은행 및 투신사의 단기수신으로 유입되어 대기성자금화되어 있는 모습임

4. 기업자금

2월중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0.4조원 증가에 그침. 기업대출은 계절적 자금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회사채발행은 LG카드사 경영정상화 추진 등으로 회사채프리미엄이 줄어드는 등 회사채 발행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월에 이어 순상환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순상환규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CP발행잔액은 기업자금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0.5조원 감소하였음

한편 2월중 기업의 자금사정은 부도업체수가 전월보다 크게 증가하고 자금사정BSI도 소기업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악화되는 등 원·부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소규모기업을 중심으로 전월보다는 다소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다만 전체적으로는 어음부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부도업체수도 전년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데다 일반보증사고발생률도 2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5. 가계신용

2월중 은행가계대출은 1월중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하였던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된 데 주로 기인하여 1월중 감소에서 전년평균수준인 2.7조원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도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신규대출수요는 크지 않지만 집단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전업카드사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1월말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은 2.23%로 나타났으나 12월중 연말결산을 맞은 은행의 연체율 축소 노력 대폭 강화 등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대체로 전년 평균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은행겸영 신용카드 부문의 경우 연말 결산

이후 대손상각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에 비해 큰 폭 상승하였으나 연체율 수준 자체는 전년 10~11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대환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서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2월중 카드채 발행은 삼성카드 증자규모에 대한 불안심리 잔존 등으로 기관투자가들이 계속 카드채 매입을 기피함에 따라 전월에 이어 부진하였으며, 유통수익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개인 및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판매가 늘면서 카드채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였음. 카드사 CP 발행은 LG카드 발행 CP의 만기도래 규모 축소 및 은행으로의 합병이 결정된 외환카드사의 발행 증가 등으로 순발행으로 전환하였음

〈의안 제13호 — 2003년도 연차보고서〉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03년도 연차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위원회는 김원태 · 남궁훈 · 김태동 · 이근경 · 이성태 · 김종창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위원으로 김원태 위원이 선정됨)